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가 자녀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임소진* · 전세경**¹⁾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학과 겸임교수* ·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Middle·High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Lim, So Jin* · Jeon, Se-kyung*¹⁾

*Practical Arts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s aim is to examine child's life competency that middle·high school parents perceive and study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The study was conducted towards parents who have children attendi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Dae-jeon. Official cooperation documents were sent to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located in Dae-jeon in April, 2013. Surveys were sent by e-mail and a total of 800 replies (excluding those with missing data) collected throughout December 10th to 20th, 2013 were used in the final data analysis.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were used for analysis and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centage were analyzed.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in order to examine the variant's relation. Path model analysis was used to study variant's path an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paths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significance.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child life competency and related variants had a high correlation and path model analysis showed that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had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child's life competency. Parenting stress has influence on parent efficacy and depression, but parent education has a different influence on child's life efficacy according to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suggestions are made throughout family academic perspectives in order to enhance child's life competency.

1) 교신저자: Jeon, Se-kyung: 27 Ungjin-ro, Gongju,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Tel: 041-850-1693, Fax: 041-850-1690, E-mail: jsk5423@daum.net

Key words: Child's Life Competency,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Depression
(자녀생활역량,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부모교육참여, 우울감)

I. 서론

정부의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다양한 정책으로 구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과제를 청소년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행복지수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um, Kim & Lee, 2016). 때문에 청소년기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 과제는 입시와 관련된 학업에 몰두되어 있고 학교 교육에서는 여전히 학업성취나 진로탐색과 관련된 부분만을 주요 역량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교육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나 방법, 가치관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정부 및 학교의 몫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급격한 변화, 자녀수의 감소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고(Jeon, Park, Auh & Jung, 2014), 학교 폭력이나 과도한 학업경쟁, 무분별한 정보 등,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환경은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강한 실정이다. 즉,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전과는 다른 부모로서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향으로, 학계에서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자녀역량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었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과 같은 부모 개인변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육

관련 변인들 중 부모효능감과 우울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Yoon & Yeon, 2015). 구체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부모효능감이 낮아지도록 하여 결국에는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 개인변인들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Dorsey & Klein, 1999; Lee & Jang, 2009).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자녀역량을 하나의 연구 안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인들 각각의 관계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로 진행되어 관련 변인들과 자녀역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들이 부모 개인 변인 및 자녀 역량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와 부모의 개인 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 강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고려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학교와 학부모 간 유대차원에서 청소년 역량 강화라고 하는 교육적 과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Van Voorhis(2001)에 따르면,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는 자녀들의 학업성취와 그 외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Seo & Choi,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부모의 개인 및 양육 관련 변인들과 부모의 교육참여 간 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및 우울감, 협력적 관계의 학교 관련 변인을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면서도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는 미미하므로,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이고 실

천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생활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안하며, 부모가 갖는 부모 양육스트레스로서 스트레스 하위 변인인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자녀 기질 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 및 우울감과 부모 자신이 학교 교육과 공조적 협력을 의도한다는 의미에서의 학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변인들이 자녀역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적위주의 역량이 아닌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교육 중심의 정책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다른 학문영역보다 부모-자녀 간 관계 및 청소년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될 때에 더욱 실증적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모가 지니고 있는 개인변인들이 자녀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서, 부모교육의 참여 정도가 어떠한 관계를 미치는데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스트레스인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자녀기질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 자녀생활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양육스트레스인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자녀기질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가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관련 문헌고찰

1. 생활역량의 정의

역량(competency)이란 어떤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위한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이자,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와 같은 실제적 상황에서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는 개인의 내적 특성 등을 의미하는 것(Spencer & Spencer, 1993; as cited in Yoon, Seo, Kim & Jo, 2015)이다. 이는 직업교육이나 기업교육 분야에서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Chung & Kyun, 2014)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역량은 개인적인 자질과 태도, 개인의 내적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역량은 새로운 과제나 문제를 수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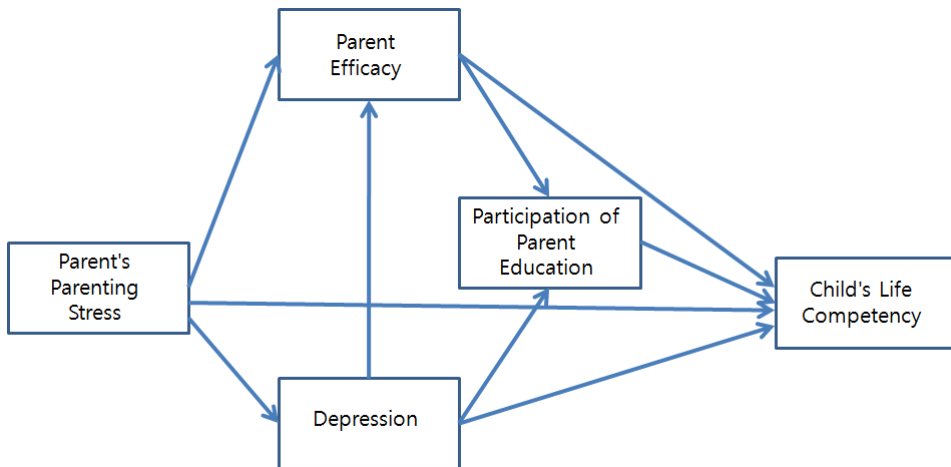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한 능력으로 정의(McCliland, 1993; Spencer & Spencer, 1993; as cited in Sung, Choi, Kim, Oh & Jin, 2015)될 수 있다.

한편, 역량은 OECD의 핵심역량(DeSeCo)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간의 전 생애동안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그 시각이 전환되었다. 즉, 직무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생활역량이라는 관점으로 확대되었다(Yun et al., 2015). 생활역량과 관련한 개념으로, 생애능력(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4), 청소년기 핵심역량(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8)등으로 제안 및 활용되고 있으며, RLee와 Kwak(2013)의 연구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역량의 개념은 ‘사람이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및 정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Yoon & Jang, 2007)’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에 초점을 두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그들 자녀의 생활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인지하는 어려움과 부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은 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treeger, Gondoli & Morrissey, 2013).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육관련 변인들 중 특히, 부모효능감과 우울감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reeger et al., 2013).

부모효능감은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적절한 부모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Lee, 2014) 반면,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Jung & Kim, 2014). 이에,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 우울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여러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 또는 우울감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과,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Jung, 2001). Song, Song 그리고 Kim(2007)의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어머니에 한정되어 있으나,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또한, Abidin(1990)의 연구와 Levy-Shiff 외(1998; as cite in Lee, 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보고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Choi & Jung, 200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이 낮았으며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경우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Jang, 2008). 또한, 양육역할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부모효능감과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Chang, Jung & Chei, 2003).

이상의 선행연구에 더해, 우울감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우울한 양육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 Moon, 2013). 우울감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문제이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은 다른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 조절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나타냈다(Jung & Kim, 2008).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자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은 낮아지고, 부모의 우울감은 높아지며 또한, 우울한 부모의 경우 부모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의 변인들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로 진행되었던 것을 한 연구모델 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붙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과 우울감과 같은 부모 개인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효능감, 부모교육참여, 자녀생활역량의 관계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발달 및 사회·심리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자녀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덜 우수하고, 또래관계에도 더 어려움을 겪는다(Kim, 2011). 이와 유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Moon(2002)과 Lee(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Lee(2014)의 연구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은 교사효능감보다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더 강력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Kim과 Do(2004)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생활역량 일부 요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생활역량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바다.

한편, Shin과 Kim(2003)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 시 자기주도성을 가지며, 효율적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익히고 이 같은 지식과 기술은 자녀를 위해 적시적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주변의 자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양육자의 경우에는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Teri & Gelfand, 1991; as cite in Seo et al., 2003). 이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그러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참여를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제시하여 부모효능감과 자녀생활역량의 관계에서 부모교육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교육참여는 부모교육의 일부분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Jeon 외(2014)의 연구에서도 학부모교육의 정의 중 일부를 살펴보면, ‘학부모로서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Cole(2007)은 부모교육참여를 아이들의 성취와 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활동에 학부모가 협력적 관계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참여는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태도, 출석률, 학업중도탈락률,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Epstein & Salinas, 2004; Green & Tichenor, 2003; as cited in Seo & Choi, 2012). 이와 같이 부모교육 참여가 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발달지체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Jung & Park, 2016)에 따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의 역량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부모보다 유의하게 큰 폭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참여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ung과 Park(2016)의 연구대상자와 특성이 상이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효능감이 낮더라도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양육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자녀생활역량을 하나의 연구 안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변인들 각각의 관계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로 진행되어 관련 변인들과 자녀의 생활역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경우 양육자의 부모효능감 저하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효능감은 부모교육참여에, 부모교육참여는 자녀 생활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자녀생활역량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을 파악하고, 부모교육 참여, 우울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생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할 동구와 서구 교육지원청의 학부모교육 담당 주무관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구 교육지원청 주무관의 협조를 통해 2013년 4월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한 중학교(88개), 고등학교(62개)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각 학교의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013년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 총 957부의 응답된 설문지 이메일로 회수되었고, 설문은 프린터로 출력한 후 Case ID를 부여하여 모

든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변형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8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부모 중 아버지는 106명(13.3%), 어머니는 694(86.7%)로 학부모 중 어머니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도 학부모 중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Choi & Jung, 2001; Kim, 2011; Kim & Lee, 2016). 본 연구에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800)		Frequencies (%)
Parent gender	Male	106(13.3)
	Female	694(86.7)
Child's School	Middle School Parents	378(47.3)
	High School Parents	422(52.8)
Parent Age	Under 30's	61(7.9)
	40's	601(78.1)
	Over 50's	108(14.0)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s	Under Middle School	15(1.9)
	High School Graduate	318(40.3)
	College Graduate	400(50.6)
	Grad. School Graduate	57(7.2)
Parent Job	Unemployed/Housewife	291(36.6)
	Manufacture/Technical	45(5.7)
	Sales/Service	163(20.5)
	Office Workers	112(14.1)
	Professionals	143(18.0)
	Other	40(5.0)
Parent's Income	Under 1.2 M won	27(3.5)
	1.2 M ~ 2.5 M won	118(15.1)
	2.51 M ~ 4 M won	262(33.5)
	4.01 M ~ 5.5 M won	166(21.2)
	5.51 M ~ 7 M won	123(15.7)
	Over 7.01 M won	86(11.0)

바와 같이 학부모의 역할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급은 중학교 378명(47.3%), 고등학교 422명(52.8%)이며, 학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 61명(7.9%), 40대 601명(78.1%), 50대 이상인 108명(14.0%)이었다. 학부모의 직업은 무직 또는 가정주부 291명(36.6%), 생산직, 기능직 45명(5.7%), 판매, 서비스직 163명(20.5%), 사무직 112(14.1%), 전문직 143명(17.9%), 기타 40명(5.0%)이었다. 수입은 월 120만원 미만인 27명(3.5%), 120만원-250만원이 118명(15.1%), 251만원-400만원이 262명(33.5%), 401만원-550만원이 166명(21.2%), 551만원-700만원이 123명(15.7%), 701만원 이상이 86명(11%)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래 <Table 2>와 같이 정리

Table 2. Measurement Tools

Variant	Content	Cronbach α
Parenting Stress	Daily Life* Stress occurred in daily life; whether parents are giving up their own work because of stress, whether they have lifestyle or other people interests etc. Total 4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daily life stress (1= Strongly Disagree ~ 5=Strongly Agree)	.771
	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interaction with child, stress felt in the relationship with child; whether parents think they have a good relationship or if they know about their child etc. Total 5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child relationship related stress (1= Strongly Disagree ~ 5=Strongly Agree)	.741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about not knowing how to deal with child's characteristics. Total 3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child characteristics related stress (1= Strongly Disagree ~ 5=Strongly Agree)	.741
Parent Efficacy*	Whether parents perceive they are doing well in parenting, or think they are good parents, feelings and acknowledgments they go through as parents. Total 6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quality in parenting (1= Strongly Disagree ~ 5=Strongly Agree)	.836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 education, consultations with teachers, participation in parent's meeting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pecial curriculum guiding. Total 5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1 =None ~ 4= Over 4 times)	.754
Depression*	Emptiness in life, depressed than prior life, hopeless, bored, worried more about future, regrets in past, wanting to cry etc. Total 10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depression. (1= Strongly Agree ~ 5= Strongly Disagree)	.906
Child's Life Competency*	Self control, Self achievement, relationships, creativity, hazard environments etc. Parent's perceive of child's family and school behavior etc. Total 33 questions. High scores mean high life competencies of children.	.910

Note. *Some Variants are Reverse Scored

하였다. 자녀생활역량에 관한 척도는 Yun과 Jang(2007)이 개발한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척도' 중에서 공동체 역량과 상황대처 역량을 제외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연구진에 의해 재구성된 부분을 포함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부모스트레스 척도(Parental Stress Index, Short Form, Abidin, 1995)를 한국의 학부모에게 적용한 Youn(2013)의 문항들을 참조하여 연구진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하위변인은 일상,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로 3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공통성이 낮거나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 척도는 Kim(2005)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우울감 척도의 경우, Russell과 Cutrona(1991)와 Auh(2005)의 연구에 사용된 Russell(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부모교육참여는 학교에서 진행된 부모교육에 참여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M(SD)		1	2	3	4	5	6	7
79.87(15.09)	1	1						
9.49(2.77)	2	-.303***	1					
10.81(2.90)	3	-.641***	.354***	1				
10.22(2.88)	4	-.490***	.444***	.446***	1			
20.88(3.77)	5	.463***	-.386***	-.434***	-.509***	1		
15.85(5.02)	6	-.219***	.431***	.268***	.390***	-.432***	1	
3.41(3.18)	7	.149***	-.023	-.159***	.013	.142***	-.032	1

Note. 1= Child's Life Competency, 2= Daily Life Stress, 3= Child Relationship Stress, 4=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5= Parent Efficacy, 6= Depression, 7=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 $p < .05$, ** $p < .01$, *** $p < .00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경로를 부모교육참여, 우울감, 부모효능감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하고,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641에서부터 .446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에 대한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생활역량, 일상생활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스트레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형 적합도가 산출되었다.

모형의 모델적합도 지수 RMSEA가 .80이하이며, TLI, CFI, GFI가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Yu, 2013).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chi^2=2.61(p>.05, df=2)$ 로 나타나 자료가 모형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인 GFI=.999, TLI=.996, CFI= 1.00이며 RMSEA=.020로 나타나 분석에 적

IV. 결과 및 고찰

1. 전체 변인들 간 상관관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과

Table 4. Model Fitness of Study Model

	χ^2	df	p-value	GFI	CFI	TLI	RMSEA
Model Fit	2.61	2	.271	.999	1.00	.996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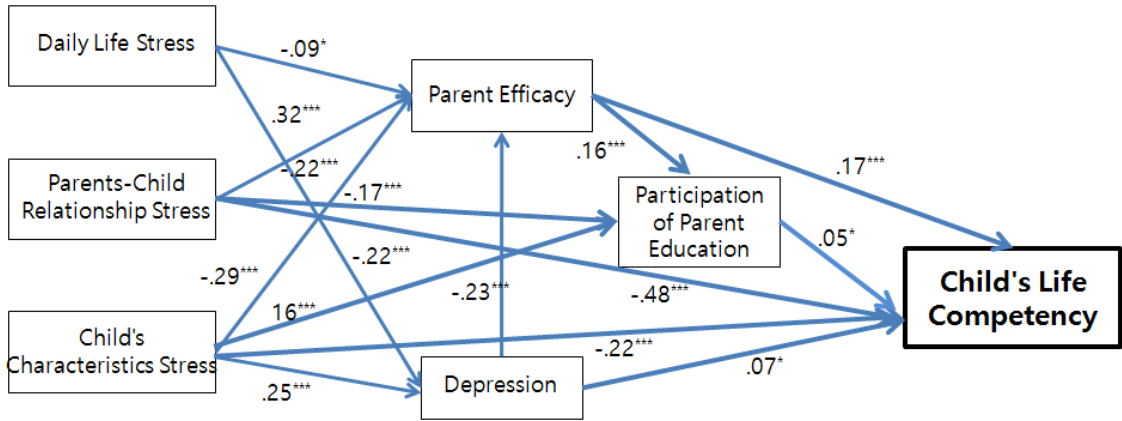


Figure 2. Study Model's Path Coefficient

Note. All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s.
* $p < .05$, *** $p < .001$

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과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Figure 2>의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경로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경로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스트레스는 부모교육참여와 자녀 생활역량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효능감($\beta = -.09$)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beta = -.22$), 부모교육참여($\beta = -.17$), 자녀생활역량(-.20)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beta = -.29$), 부모교육참여($\beta = .16$), 자녀생활역량($\beta = -.20$)에 직접적인 영향

Table 5. Study Model's Path Coefficient

Path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C.R.
Child Relationship Stress	-3.00	-.48***	.19	-16.07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1.42	-.20***	.20	-6.82
Parent Efficacy ⇒ Child's Life Competency	.66	.14***	.13	5.15
Depression	.21	.07*	.09	2.38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26	.06*	.12	2.09
Daily Life Stress	-1.12	-.09*	.05	-2.55
Child Relationship Stress ⇒ Parent Efficacy	-3.33	-.22***	.05	-6.70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4.47	-.29***	.06	-8.41
Depression	-1.17	-.23***	.02	-7.01
Daily Life Stress ⇒ Depression	.58	.25***	.08	7.17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53	.32***	.06	9.28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21	.16***	.06	3.54
Child Relationship Stress	-2.22	-.17***	.05	-4.2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Study Model's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Path		Direct	Indirect	Total
Daily Life Stress		.	-.01	-.01
Child Relationship Stress		-.48	-.05**	-.53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 Child's Life	-.22	-.03*	-.25
Parent Efficacy	Competency	.16	.01*	.17
Depression		.07	-.04**	.03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05	.	.05
Daily Life Stress		-.09	-.07**	-.16
Child Relationship Stress	⇒ Parent Efficacy	-.22	.	-.22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29	-.06**	-.35
Depression		-.23	.	-.23
Daily Life Stress	⇒ Depression	.32	.	.32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25	.	.25
Daily Life Stress		.03	-.02	.01
Child's Characteristics Stress		-.17	-.05**	-.22
Child Relationship Stress	⇒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16	-.06**	.10
Parent Efficacy		.16	.	.16
Depression		.01	-.04**	-.03

*p<.05, **p<.0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자녀가 학교 및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가 생활하는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beta=-.23$)의 경우, 부모효능감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교육참여와 자녀생활역량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부모교육참여($\beta=.16$)와 자녀생활역량($\beta=.14$)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beta=-.04$, $\beta=-.04$)과 학부모의 부모교육참여($\beta=-.04$, $\beta=-.05$) 변인을 통해 자녀생활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아지고,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부모교육참여가 빈번하다면, 자녀생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자녀생활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beta=-.03$)과 부모교육참여($\beta=-.04$)를 통해 자녀생활역량에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의 우울감이 높아 부모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부모교육참여 정도가 빈번하다면 자녀생활역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부모효능감과 부모교육참여를 통하여 자녀생활역량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 영향보다 직접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학교 및 가정생활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간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녀생활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차원적 개념의 자녀생활역량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관련변인들인 부모 양육스트레스인 일상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스트레스, 자녀기질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우울감, 부모교육참여, 자녀생활역량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밝혀, 관련 변인들이 학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이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자의 우울감이 높으면 부모효능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하고 부모 자신의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Choi, 2015; Lee, 2014; Lee, Park & Choi, 2010) 기존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강력한 예측변인이 된다는 Ahn(201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감은 부모효능감을 감소시킨다는 Park과 Moon(2013)의 연구 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우 부모 개인의 양육관련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관계스트레스와 자녀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과 우울감 같은 부모 개인의 양육관련 변인들뿐 아니라 자녀생활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양육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생활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Jung과 Kim(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쉽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Steeger, Gondoli & Morrissey, 2013),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들의 자원이 요구되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참여 프로그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관계스트레스와 자녀기질스트레스는 부모교육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부모교육참여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부모교육참여를 덜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외(2015)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적 기질에 관한 중단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적 기질은 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기질은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기질로 인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로 오는 스트레스는 그 해결 방법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 부모교육참여 등 외부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반면, 자녀 기질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부모의 인식이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조력 등을 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자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성들은 조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부모교육참여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다른 학문영역보다 부모-자녀 간 관계 및 청소년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될 때에 더욱 실증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부모교육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반면, 우울감의 경우 부모교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우울은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높다. Reitman, Currier과 Stickle(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공감능력이 낮고 정서적으로 자녀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자녀를 보다 덜 신뢰하며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역시 낮은 것으로 보고한다(as cited in Choi et al., 2015). 이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행하는 일체의 활동들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효능감이 높은 양육자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효율적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자발적으로 익히려는 특징을 지니므로(Shin & Kim, 2003), 본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부모교육참여는 부모효능감과 우울감이 자녀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모효능감이 낮아지더라도 부모교육참여에 적극적이라면, 자녀의 생활역량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도록 한다. 즉, 부모의 양육 기술이 뛰어

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자신감이 높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교육참여를 통해 자녀의 생활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교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의 효능감이 낮더라도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부모교육참여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Won, 2009). 그러나 Lee(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높으나 학부모들이 실제 관여하는 실제 행동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과 같은 가정배경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Seo & Choi, 2012).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실제적인 참여활동으로 발현되는 데에는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적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부모의 경우 오히려 가정배경으로 인해 자녀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함께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교 중심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정보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녀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은 부모 개인이나 학교 교육 제 각각의 개별적 변화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육기관의 동반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부모효능감과 우울감은 자녀 생활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의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생활역량이 강화되는 기존의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Kim, 2011; Lee, 2014; Kim & Do, 2004),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경우 오히려 자녀생활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 두고 추론해보면,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모가 우울감이나 무기력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존 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역량을 강화

시켜 나간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발달단계나 기질 등 어떠한 세부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서 흥미 있는 연구 주제를 제시해 준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들은 서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부모 개인에서부터 학교 교육 모두가 자녀의 생활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 교육 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자녀의 생활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이 자녀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자녀생활역량의 각 하위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기에, 관련 변인들이 자녀생활역량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이 자녀생활역량의 하위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역량과 관련변인들을 사용하여, 중·고등학생 학부모 외에도, 초등학교 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학부모나 조부모, 또는 성별에 따른 학부모 등, 양육자를 다양화 하여 이들의 양육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자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자녀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생활역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Auh, S (2005).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mong rural*

-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 Ahn S-Y (2015). The of effects that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s mothers have on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219-238.
- Choi H-S & Jung O-B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 - 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 Associate of Child Studies*, 22(3), 1-15.
- Choi H-S, Yoon H-O & Yeon E-M (2015). The longitudinal medication effect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o infants' emotional temperament. *Journal Korea Society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9(3), 119-142.
- Chung K-S & Kyun J-Y (2014). The relationship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nd parental efficacy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35, 113-143.
- Cole, B (2007). Mother, gender and inclusion in the context of home-school relations. *Support for Learning*, 22(4), 165-173.
- Dorsey, S., Klein, K., & Forehand, R.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 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Ⅲ)*. Seoul: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eon S-K, Park S-O, Auh S & Jung I-K (2014).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healthy family: Parent education's program*. Dae-Joe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Jung J-Y & Kim S-J (2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mathematics anxiety of mathematical underachievers i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11(2), 315-335.
- Jung S-Y & Park J-Y (2016). Effect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on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on parenting efficiency, family empowerment, and family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89-108.
- Jung Y-J & Kim Y-J (2014). The effects of NLP counseling program on parenting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attitude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 or school-ag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2), 485-511.
- Kim E-Y (2005). *Th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ysfunctional Discipline practice to child's adjustment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Psychology, Seoul, Korea.
- Kim E & Lee K (2016).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school and parents by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Focusing on parent involvement model schools. *Journal fo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27-49.
- Kim H-M & Do H-S (2004).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25(6), 279-298.
- Kim K-E (2011).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4), 1-17.
- Lee C-O, (2014). The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teacher 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3(1), 235-246.
- Lee I-H, Park J-E & Choi S-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 Lee J & Jang M (2008).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on effect of irrational belief in parent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9(2), 1-16.

- Lee J-O (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5), 403-428.
- Lee Y-J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temperament of child,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self-efficacy in employed mother.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5, 117-136
- Moon T-H (2002). Relationships among mother's thinking style,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 Associate of Studies*, 23(6), 49-63.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ark H-J, Moon H-J (2013).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their effects on parentn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3), 81-98.
- RLee K-J, Kwak S-R (2013). A study to schooling satisfaction of the secondary school parents: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al of Education*, 23(4), 155-175.
- Seo H-S & Choi I-S (2012). Parental engagem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parents' socioeconomic s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243-263.
- Seo M-J, Jang E-J, Jung C-H & Chei S-Y (2003). Th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mother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1), 69-81.
- Shin Y & Kim H (2003). Parent efficacy as an applicable concept of andragogy: implications for disabled children's parent education program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1), 59-84.
- Song M-H, Song Y-S & Kim Y-J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165-183.
- Steeger, C. M., Gondoli, D. M., & Morrissey, R. A. (2013). Maternal avoidant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 (7), 952-961.
- Sung E, Choi C, Kim H, Oh S-Y & Jin S-H (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117-144.
- Won J-Y (2009).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125-150.
- Yoon M-H & Jang A-R (2007). A study of life competency for adolescent at risk in Busan area.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 55-79.
- Youn Y-S, Kim K-M & Lee S-W(2016).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 Bangeonghwan Foundation.
- Youn E-H (2013).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 With a focus on parent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ju, Korea.
- Yu, J. P.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equation model(1th de)*. Seoul: Hannarae.
- Yun M, Seo H, Kim K & Jo J (2015).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 life competency scale for adolescenc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8(2), 401-425.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자녀생활역량을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가 자녀생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고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4월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13년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8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3.0 및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변인들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경로모형분석과 경로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생활역량 및 관련 변인들의 높은 상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로모형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교육참여가 자녀생활역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학부모효능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나, 부모교육참여에 따라 자녀생활역량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생활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정교육학계에서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09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10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08일